

『충북 Focus』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는 분석과 충북의 영향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북의 발전을 위한 이해 제고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발간하는 심층적 정보동향지입니다.

본 『충북 Focus』의 내용은 자체 연구물로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충북 FOCUS 제20호(2011-1)

(2011. 01. 07)

내용문의 : 조택희(043-220-1118)

자료문의 : 발간자료 담당(043-220-1107)

본 포커스의 내용은 CR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cri.re.kr

2010년 충북경제 진단 및 2011년 충북경제 전망

조택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I. 2010년 충북경제 결산

1. 충북경기
2. 충북지역 산업활동
3. 충북지역 고용
4. 충북지역 소비
5. 충북지역 물가
6. 충북지역 금융
7. 충북지역 수출·수입

II. 2011년 충북경제 전망

1. 국내경제 전망
2. 충북경제 전망

요 약

□ 2010년 충북 경제는 上高下低형 증가세

- 산업생산활동 높은 증가세 지속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의 생산활동 상승세 지속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개선
-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소비 증가세가 지속
-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로 하반기 큰 폭 상승
-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입 모두 두자리 이상의 큰 폭의 상승률 기록
 - 11월 누계비 수출 26.8% 증가, 수입 23.5% 증가

□ 2011년 충북 경제는 전국 수준을 다소 상회한 경제성장률 4.6% 내외 전망

- 충북을 중심으로 투자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상향될 가능성 상존
 - 201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4.2% 내외로 전망
- 고용시장이 안정과 투자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3%대 중반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국보다 다소 높은 7% 초중반 증가 전망
 -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제품과 자동차 관련 부품 소재 산업 경기 증가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전망
- 수출은 충북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0% 초반 증가율 전망

I . 2010년 충북경제 결산

1. 충북경기

- 충북 경기동행지수는 8월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2개월 연속 하락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상반기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였으나, 8월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 8월 이후 하락 전환하였으며, 최근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표 1. 충북 경기동행종합지수

(단위:%, p)

구 분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행종합 지수	111.1	112.9	114.0	114.8	114.4	114.7	115.1	115.3	114.8	113.7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1.0	1.7	0.9	0.7	-0.3	0.2	0.3	0.2	-0.4	-1.1
순 환 변 동 치	99.8	101.2	102.0	102.1	101.4	101.5	101.5	101.5	100.8	99.6
순환변동치 전월차	0.8	1.4	0.7	0.1	-0.6	0.0	0.1	-0.1	-0.6	-1.2

자료 : 충북개발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

- 기업체감 경기는 상반기 개선되다 최근 하락세 지속
 - 도내 기업의 체감경기지표인 BSI는 6월까지 소폭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8월 이후 감소 추세
 - 11월 현재 제조업 92, 비제조업 76을 기록
 -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경기를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으나 특히, 비제조업 부문이 제조업보다 크게 부진함
 - 전국과 비교하여 보면 해당 월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비제조업의 경우, 전국에 비해 충북의 체감경기가 크게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전국이 개선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표 2.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제조업	96	97	98	99	102	104	102	96	94	92	92
	(93)	(94)	(99)	(103)	(103)	(105)	(103)	(98)	(92)	(94)	(92)
비제조업	77	78	77	85	82	77	80	74	76	79	76
	(86)	(86)	(86)	(90)	(90)	(88)	(89)	(83)	(84)	(89)	(91)

주 : 괄호안은 전국BSI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2. 충북지역 산업활동

□ 충북지역 산업활동은 연초에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9월 이후 증가폭이 크게 감소되었음.

- 연초 생산지수, 출하지수 모두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재고지수도 큰 감소율을 보였으나, 최근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완만한 상승세 지속
- 산업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의 전년누계비는 10월 현재 +15.9%, +17.0%, -2.3%를 나타냄

□ 산업생산활동 증가세 지속

- 산업생산지수는 2010년 1/4분기에 큰 폭 증가세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점차 증가율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임.
 - 산업생산지수의 10월 누계비 증가율은 전국이 18.6% 증가, 충북도 15.9% 증가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도 증가세 지속
 - 출하지수는 연초 높은 증가세로 출발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
 - 전년누계비도 17.0% 증가하였으며, 전년(10.2%)보다도 높은 수준
- 재고지수는 연초 감소세에서 하반기 증가세로 전환
 - 재고지수는 1월 -15.4% 감소로 출발하여 7월 -5.8%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8월 5.9% 증가 전환하면서 10월 현재 13.7% 증가

● 표 3. 충북산업 생산활동 지수(계절조정지수, 2005=100)

시점	계절조정지수			전년동월비			전년 누계비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10/01	144.6	159.8	162.2	33.9	34.9	-15.4	33.9	34.9	-15.4
10/02	151.7	161.9	162.4	27.2	26.2	-10.7	30.3	30.4	-13.1
10/03	150.1	158.7	167.0	18.9	18.5	-4.6	26.3	26.2	-10.3
10/04	152.6	162.3	165.3	16.3	17.0	-3.7	23.6	23.7	-8.8
10/05	154.2	167.2	163.1	16.3	18.9	-4.9	21.9	22.7	-8.0
10/06	155.6	166.1	164.6	14.7	14.9	-3.9	20.7	21.3	-7.3
10/07	159.8	175.0	166.7	12.7	18.2	-5.8	19.5	20.8	-7.1
10/08	158.7	163.1	180.8	14.1	10.7	5.9	18.7	19.5	-5.6
10/09	151.7	161.7	182.9	5.1	6.8	10.1	17.0	18.0	-3.9
10/10	152.5	165.1	181.4	6.1	8.9	13.7	15.9	17.0	-2.3

자료 : 통계청

□ 2010년 충북 산업생산활동은 전국에 비하여 낮은 증가세

- 2010년 충북의 산업생산활동은 매분기 증가세를 보였으며, 3/4분기까지의 누적 산업생산 증가율은 17.0%로 전국의 19.8% 증가를 하회
 - 전년은 산업생산지수가 7.9% 증가하면서 전국 -1.3% 감소보다 높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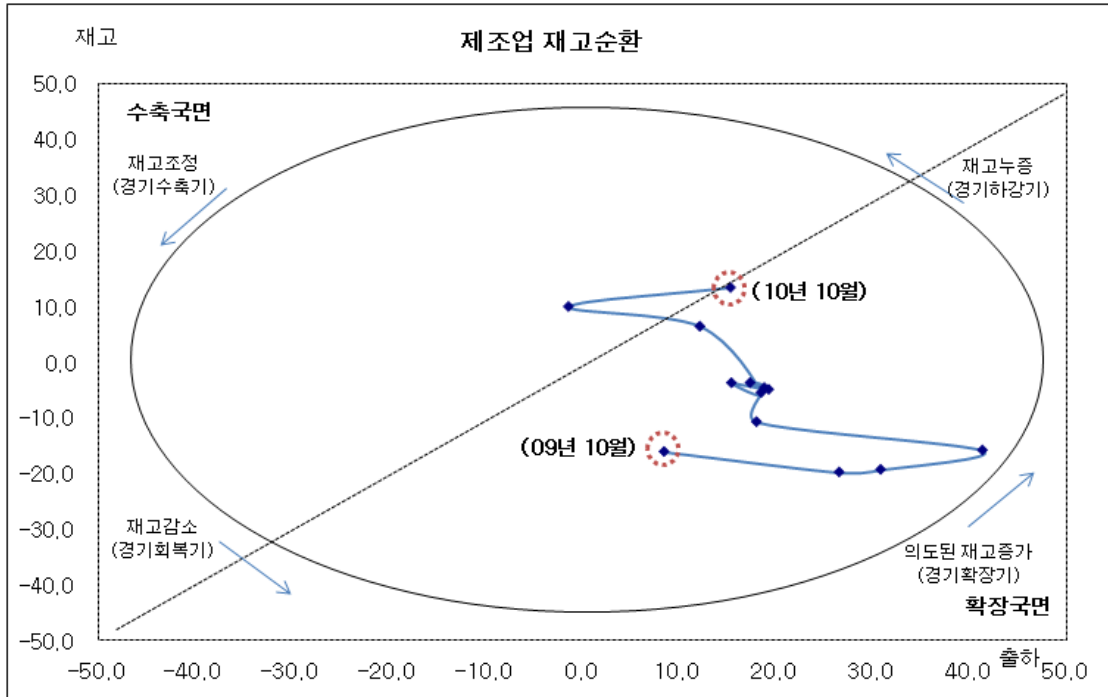
● 표 4. 산업생산지수 추이(계절조정지수, 2005=100)

	2009 1/4	'09 2/4	'09 3/4	'09 4/4	2010 1/4	'10 2/4	'10 3/4
산업생산지수	117.8 (105.0)	133.2 (116.9)	141.8 (125)	145.8 (126.6)	148.8 (133.1)	154.1 (139.7)	156.7 (142.6)
증감률 (전년누계비)	-9.5 (-16.2)	-2.3 (-11.3)	2.7 (-6.9)	7.9 (-1.3)	26.3 (26.8)	20.7 (22.9)	17.0 (19.8)

주 : 괄호안은 전국임.
자료 : 통계청

- 재고순환을 보면 전반적으로 확장국면에 위치하나 최근 위축
 - 상반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8월 이후 확장세가 둔화되는 양상
 - 상반기는 재고 감소세가 지속되고, 생산 출하 증가세되는 확장국면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둔화되는 모습

● 그림 1. 제조업 재고순환 추세



□ 충북의 주력산업이면서 수출주력제품인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의 생산활동의 상승세 지속

- 연초부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증가율은 연초 70.4%의 높은 증가율로 출발하였으며, 증가폭은 축소되었으나 10월 현재 13.2% 증가
 - 또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전자부품 산업생산과 더불어 연초 큰폭의 증가세에서 출발하였으며, 4월, 8월, 9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0월 현재 7.2%의 증가를 보임

● 표 5. 산업별 산업생산지수(원지수, 2005=100)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추이

	201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국	37.0	18.9	22.7	20.1	21.7	17.2	15.6	17.0	3.9	13.5
충 북	43.7	16.6	19.1	16.4	16.3	14.8	13.0	15.4	-3.3	12.7
식료품	23.7	7.0	9.9	4.3	2.0	4.4	7.2	11.8	-3.2	17.2
화합물	51.8	25.9	3.8	-6.4	4.0	9.6	4.9	-2.1	-26.4	7.2
비금속광물	16.0	1.7	-3.0	11.0	1.8	-0.4	7.8	-9.1	-28.6	3.8
전자부품	70.4	32.5	29.9	25.7	18.7	18.9	26.1	26.2	11.0	13.2

주 :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 대표적 내수관련 산업인 식료품 상승세 지속, 비금속광물산업 증감 반복
 - 식료품 생산은 1월 전년동월대비 23.7% 증가로 출발한 이후 9월 소폭 하락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며, 10월 현재 17.2% 증가
 - 국내 건설경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비금속광물산업은 1월 16.0% 증가로 출발 하였으나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10월 현재 3.8% 증가

3. 충북지역 고용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개선

- 충북 취업자수 증가율은 11월 현재 전년누계비로 1.7% 증가(전국 평균 +1.3%)
 - 11월 현재 전년 누계비로 농림어업은 -9.5% 감소하였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4.1%, 3.8% 증가(전국은 각각 -5.3% 감소, +4.8%, +1.2% 증가)
- 건설업 부문은 지역건설경기 부진 속에서 상반기 감소세로 출발하였으나 하반기 들면서 큰폭으로 증가하며, 11월 현재 전년누계비로 5.5% 증가(전국 1.9% 증가)

● 표 6.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율 추이(전년동월비)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누계
전체	0.9 (0.0)	2.3 (0.5)	4.1 (1.2)	3.5 (1.7)	1.7 (2.5)	1.7 (1.3)	2.1 (2)	1.6 (1.6)	1.2 (1.0)	0.4 (1.3)	-0.7 (1.3)	1.7 (1.3)
농림어업	-12.4 (-12.4)	-12.1 (-10.7)	-15.9 (-12)	-9.9 (-7.3)	-9.8 (-4.7)	-9.1 (-2.1)	-7.9 (-2.3)	-7.6 (-2.0)	-8.3 (-3.2)	-8.7 (-3.0)	-6.5 (-3.0)	-9.5 (-5.3)
제조업	6.8 (0.8)	6.5 (1.2)	10.4 (2.9)	7.2 (3.8)	2.2 (4.9)	3.2 (4.7)	-0.1 (6.2)	5.3 (7.9)	4.0 (6.6)	-0.1 (6.2)	0.7 (7.4)	4.1 (4.8)
서비스업	0.9 (0.8)	3.4 (1.3)	6.8 (2)	5.9 (2.2)	4.9 (2.7)	4.3 (0.9)	5.7 (1.5)	3.1 (0.7)	3.0 (0.3)	3.2 (0.7)	0.5 (0.4)	3.8 (1.2)
건설업	-6.4 (-4.8)	-9.8 (-5.2)	-2.8 (-0.9)	3.5 (1.1)	-2.4 (2.6)	5.8 (3.8)	16.0 (7.0)	8.0 (6.5)	5.3 (2.8)	25.3 (5.6)	16.7 (2.9)	5.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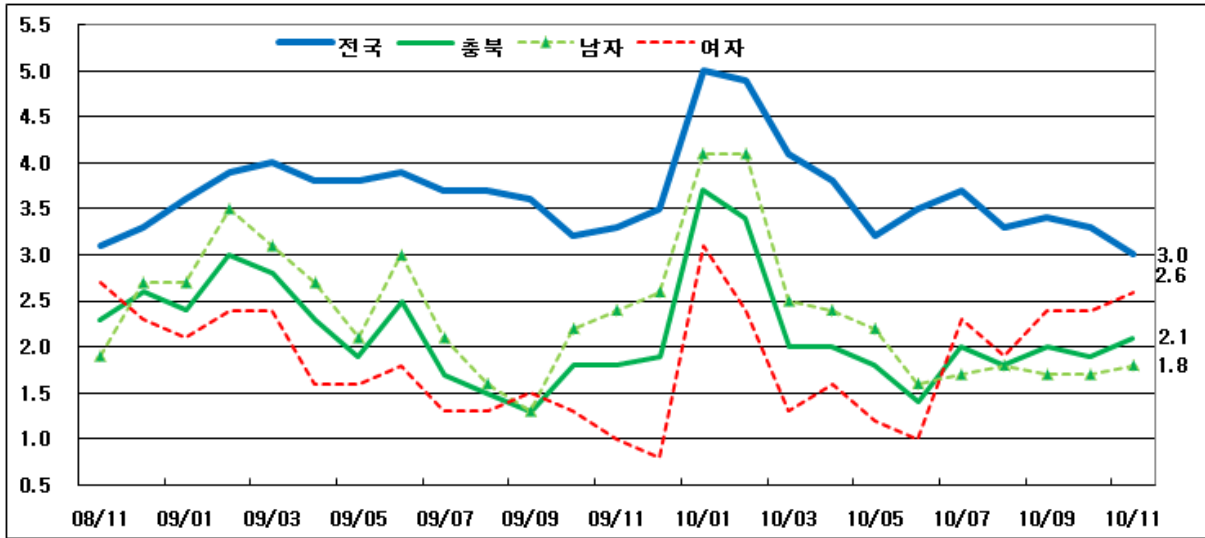
주 : 괄호안은 전국임.

자료 : 통계청

□ 도내 실업률은 연중 3.7%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안정세 지속

- 충북의 2010년 실업률은 1월 3.7%로 2010년 최고치를 나타냄
 - 이후 실업률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전국은 하향되는 추세에 비해 충북은 증가되는 양상

● 그림 3.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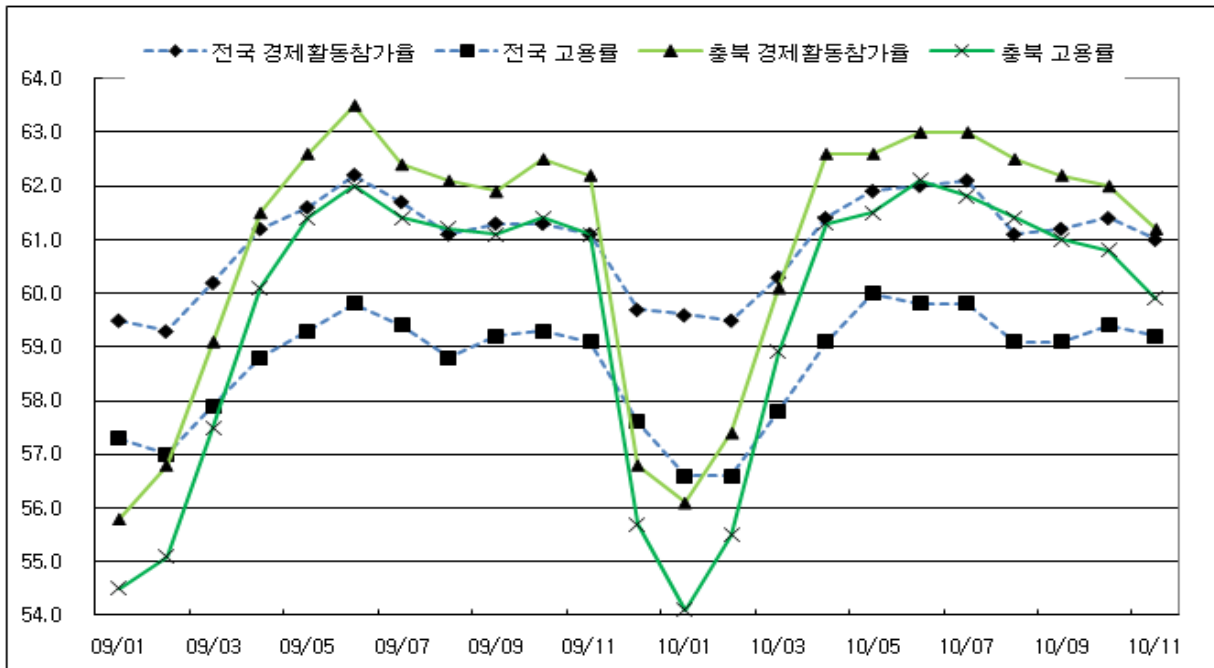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4분기 이후 전국 보다 높은 수준 유지

- 충북의 2010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반기에는 전국평균보다 낮았지만 하반기에는 전국 평균을 상회
 - 2010년 고용률 또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국평균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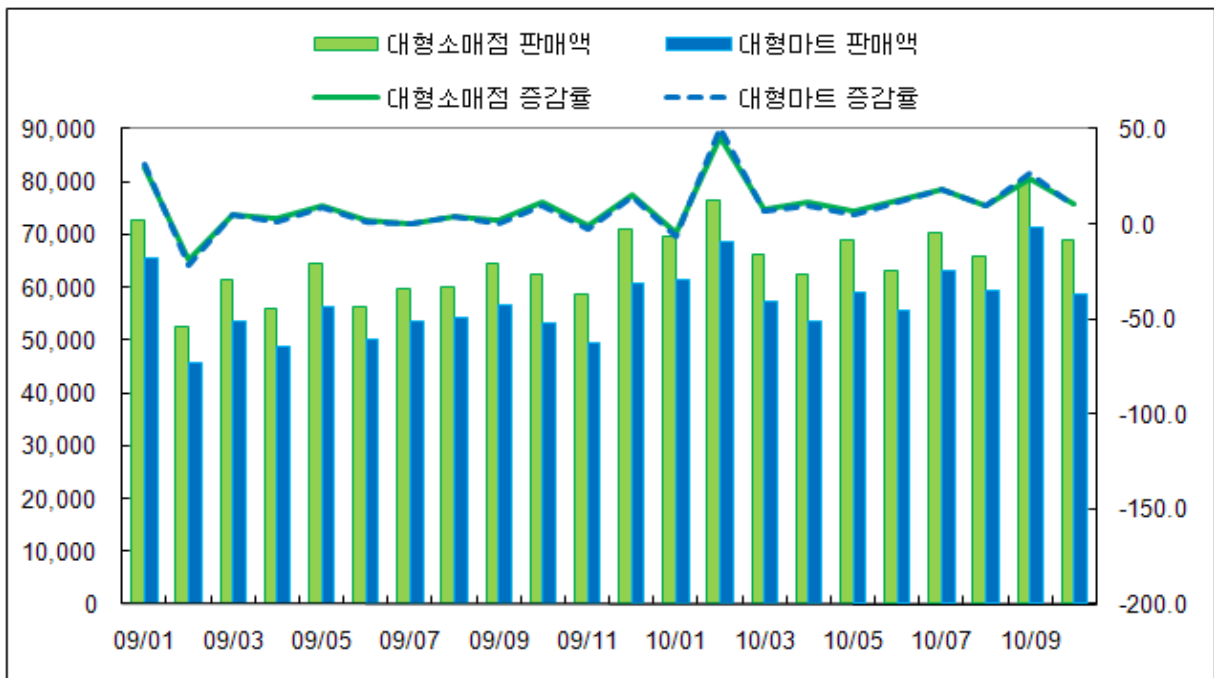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4. 충북지역 소비

□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은 증가세를 유지

- 2010년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한 696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월부터 증가 전환하면서 10월 현재 누계로 전년대비 13.4% 증가함
- 대형마트 판매액 또한 대형소매점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 그림 5.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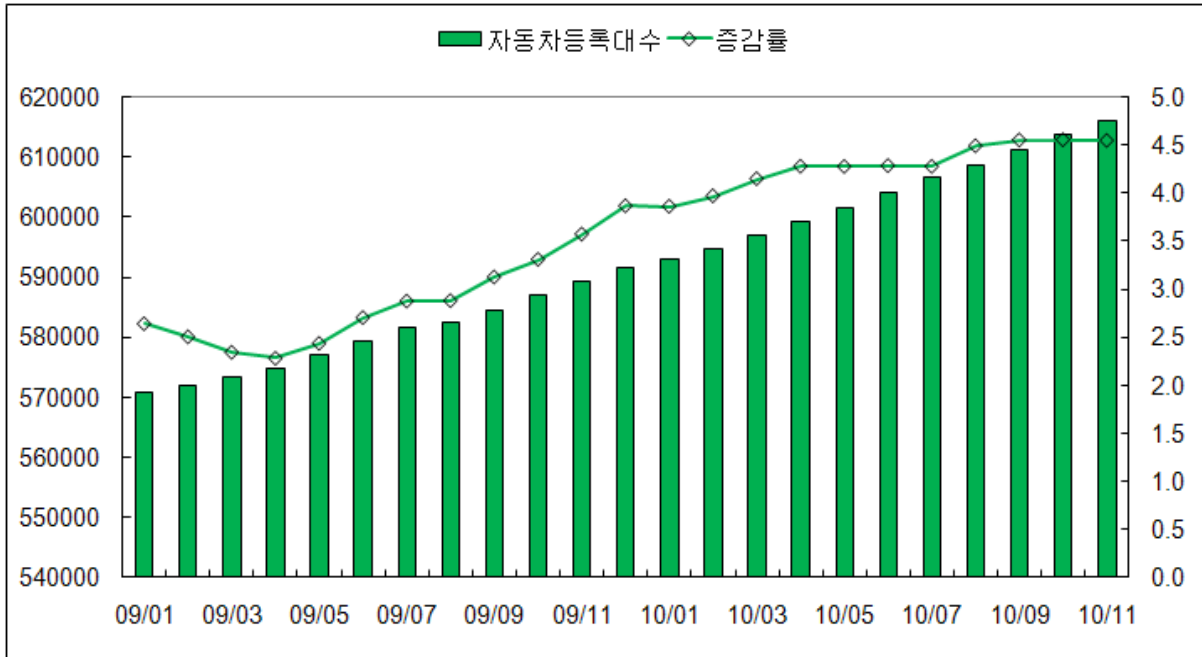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2010년 11월 현재 충북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16천대

- 충북 자동차 등록대수의 71.7%인 442천대가 승용차인 가운데 자동차 전년동월대비 4.5%로 전년도 2009년 12월(3.9%)보다 증가되었으며 24.7천대가 증가함
 - 전년대비 자동차 등록 증가율이 1월 4.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11월 현재 4.5% 증가함

● 그림 6.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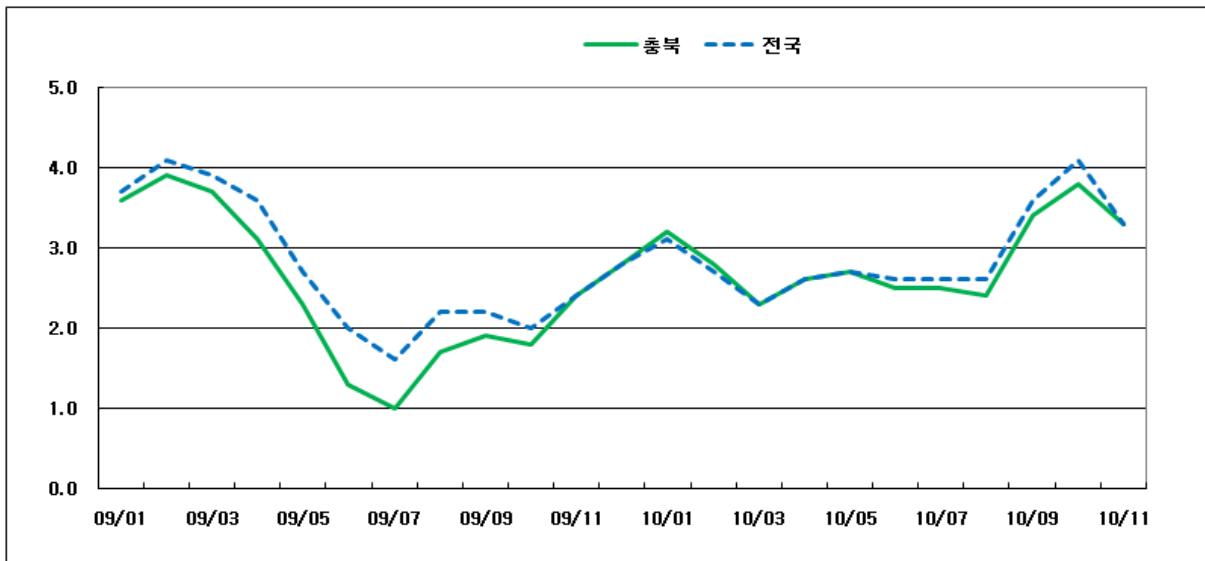
5. 충북지역 물가

□ 2010년 소비자물가(CPI)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

○ 2010년 충북 소비자 물가는 전국물가와 비슷한 추세를 보임

- 충북 소비자물가는 전년누계대비 2.8% 상승하여 전국평균 2.8% 상승과 같은 상승률을 보임

● 그림 7.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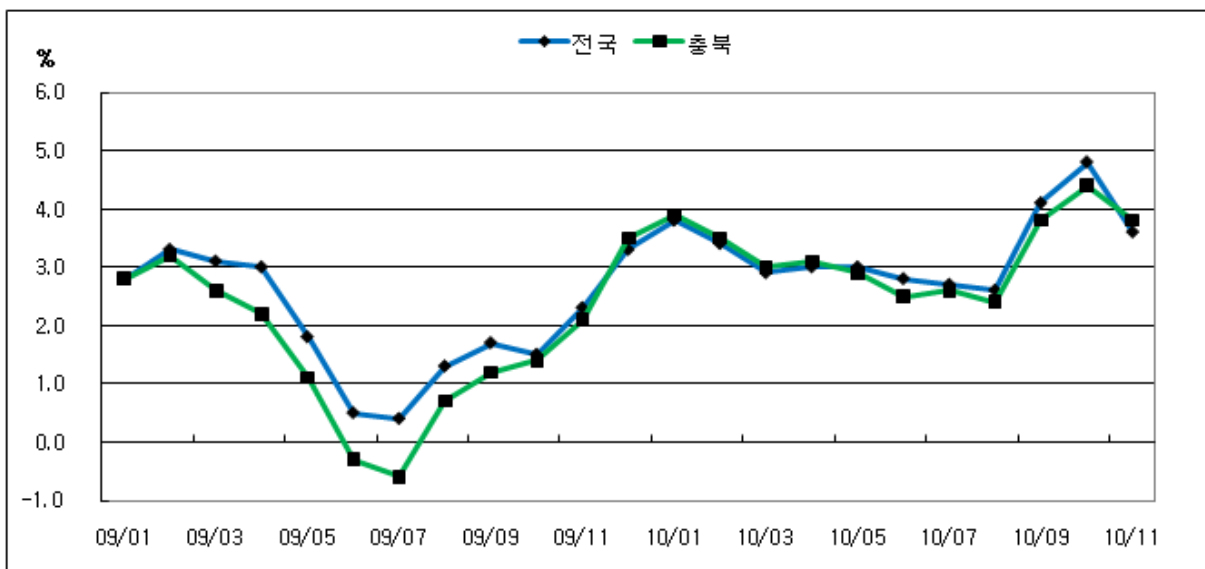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관련있는 생활물가지수의 상승폭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 생활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다 여름철 상승세가 확대된 후 11월 현재 소폭 축소된 3.8% 증가
- 충북 생활물가지수 상승은 전년누계대비 전국평균 0.1%p 낮은 수준
- 2010년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누계대비 3.2%증가하여 소비자물가지수(2.8%)보다 0.4%p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그림 8.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자료 : 통계청

6. 충북지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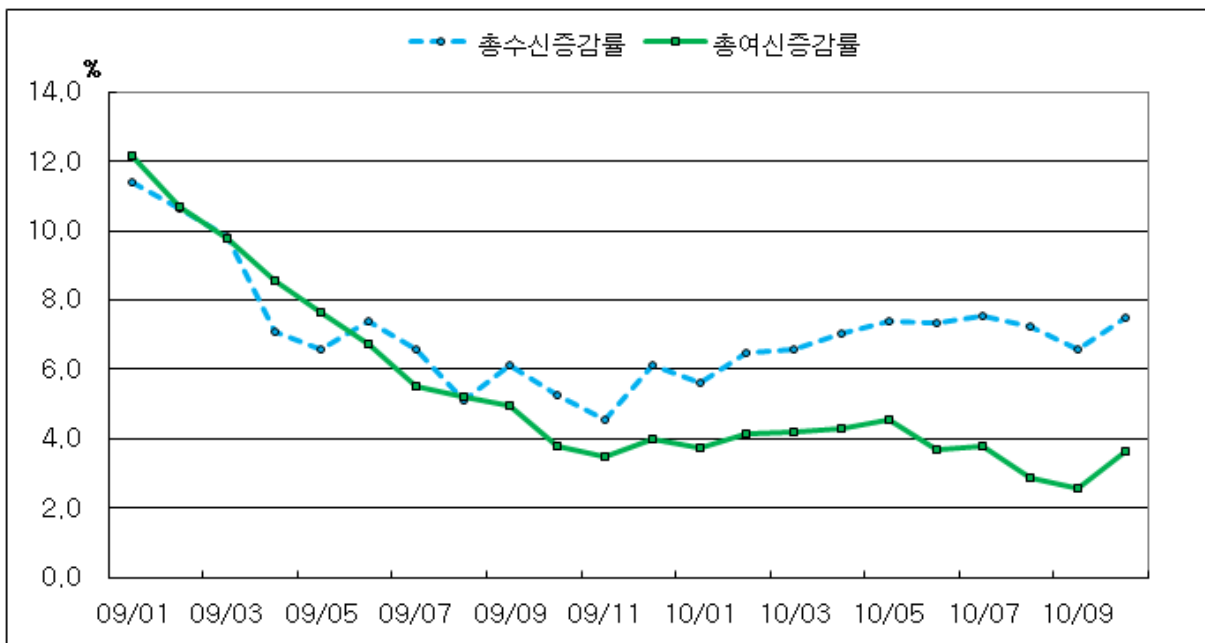
□ 금융기관 총수신과 총여신 상승세 지속, 수신(예금) 상승폭이 큰 폭 상승

- 충북지역 총수신 잔액은 2010년 10월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한 31조 64억 원으로 1월 5.6% 증가로 출발하였으며 증가폭 확대 지속
- 2010년 총대출 증가율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6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확대
 - 10월 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은 6.0%로 비예금은행 대출 증가율 6.4%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충북 어음부도율 전국 평균 상회

- 도내 기업들의 시중 자금사정을 판단하는데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어음부도율은 2010년 평균 0.44%¹⁾로 전국(0.15%)보다 높음
 - 어음부도율의 변이계수를 보면 전국 0.21, 충북은 0.40로 나타나 어음부도율의 변동성은 전국평균보다 충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평균 부도율은 제천(0.61%), 충주(0.52%), 청주(0.42%) 순으로 높음

● 그림 9. 총여신 및 총수신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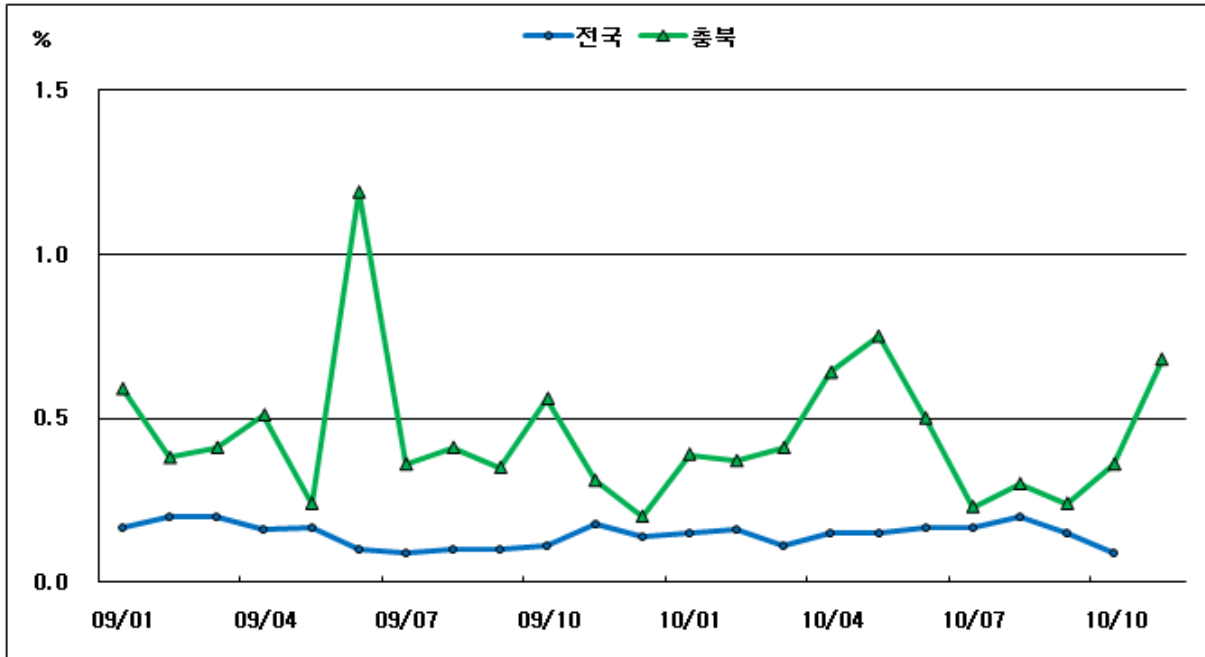
주 : 1) 총수신은 예금은행 예금(CD, RP, 표지어음 제외)과 비은행금융기관 수신합계임.

2) 총여신은 예금은행 대출금과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합계임.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1) 11월까지의 산술평균 기준으로 실제 평균 어음부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림 10. 어음부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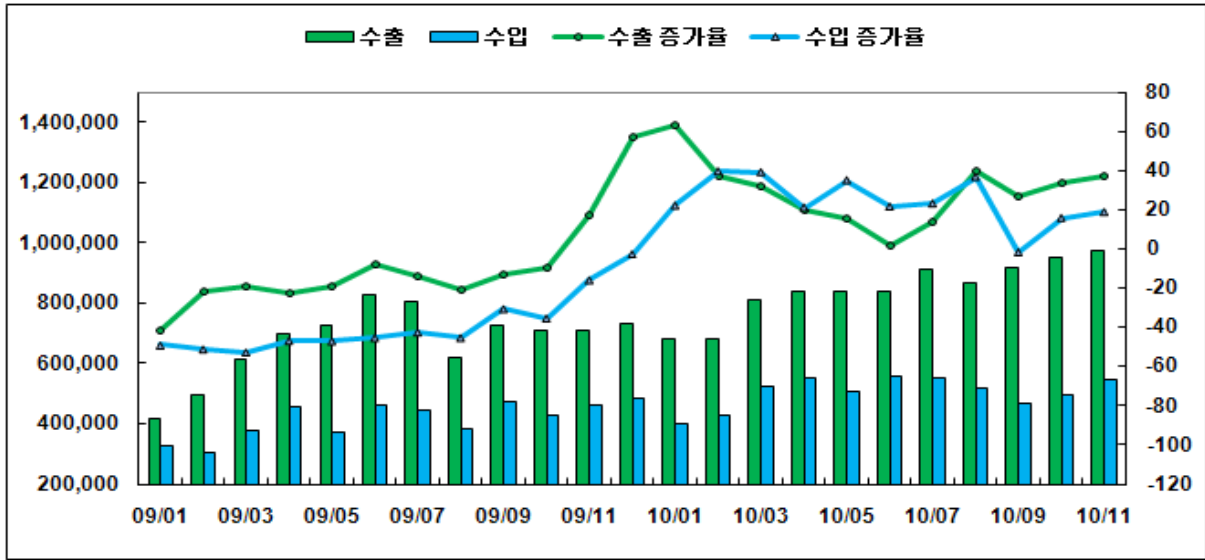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7. 충북지역 수출 · 수입

- 2010년 수출 및 수입은 전년도 수출(-12.3%), 수입(-40.1%) 감소에서 증가전환
 - 2010년 충북 수출 증가율은 11월 현재 전년누계비로 26.8% 증가
 - 이러한 높은 수출증가세는 충북의 수출입 비중이 큰 전자전기제품(23.1%), 기계류(36.6%), 화학공업제품(22.7%), 플라스틱고무제품(24.7%) 부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
 - 2010년 사상 처음으로 100억불 수출달성
 - 2010년 충북 수입 증가율은 11월 현재 전년누계비로 23.5% 증가
 - 2010년 11월 현재 누적 무역수지는 37억 7천 4백만 달러 흑자(전년도 31억 1천 1백만 달러 흑자)
 - 11월 누계기준 충북수출 중 54.7%를 차지하는 전자전기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도 13.4% 감소에 이어 11월 현재 누계 23.1% 증가함

● 그림 11. 수출 및 수입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표 7. 상위 10개 품목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09년				2010년 11월 누계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가율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가율
1	전자전기제품	4,509	55.8	-13.4	전자전기제품	5,091	54.7	23.1
2	기계류	1,700	21.0	-13.2	기계류	2,087	22.4	36.6
3	화학공업제품	709	8.8	-13.2	화학공업제품	794	8.5	22.7
4	플라스틱고무및 가죽제품	507	6.3	4.1	플라스틱고무및 가죽제품	570	6.1	24.7
5	철강금속제품	271	3.4	-27.6	철강금속제품	373	4.0	54.5
6	농림수산물	226	2.8	8.3	농림수산물	220	2.4	10.3
7	섬유류	102	1.3	-5.6	섬유류	104	1.1	13.7
8	생활용품	22	0.3	-6.3	생활용품	41	0.4	124.1
9	잡제품	27	0.3	35.8	잡제품	26	0.3	19.3
10	광산물	8	0.1	-33.5	광산물	9	0.1	35.4
	합계	8,080	100.0	-12.3	합계	9,315	100.0	26.8

주 1 : 괄호안은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임.

주 2 : 순위는 2010년 누계 기준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수입 중 화학공업제품과 전자전기제품이 높은 비중을 보임.

- 2010년 11월까지 화학공업제품의 수입 비중은 26.1%이며 전년누계대비 23.5% 증가함 (전년도 26.0% 감소)
- 전년누계비로 전자전기제품은 6.2% 증가한 11억불을 수입하였고, 철강금속제품은 36.9% 증가한 8억불을 수입

● 표 8. 상위 10개 품목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2009년				2010년 11월 누계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가율	품목	수출액	비중	증가율
1	화학공업제품	1,306	26.3	-26.0	화학공업제품	1,447	26.1	23.5
2	전자전기제품	1,217	24.5	-37.4	전자전기제품	1,178	21.3	6.2
3	철강금속제품	713	14.3	-34.8	철강금속제품	876	15.8	36.9
4	농림수산물	600	12.1	-24.0	농림수산물	642	11.6	17.5
5	플라스틱고무및 가죽제품	355	7.1	-72.1	플라스틱고무및 가죽제품	612	11.0	95.3
6	기계류	506	10.2	-55.7	기계류	485	8.8	5.6
7	섬유류	139	2.8	-6.5	섬유류	162	2.9	29.2
8	광산물	73	1.5	-22.1	광산물	71	1.3	11.8
9	잡제품	46	0.9	69.2	잡제품	52	0.9	20.9
10	생활용품	15	0.3	-29.9	생활용품	16	0.3	15.7
	합계	4,969	100.0	-40.1	합계	5,540	100.0	23.5

주 1 : 괄호안은 전년동월(기)대비 증감률임.

주 2 : 순위는 2010년 누계 기준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II. 2011년 충북경제 전망]

1. 국내경제 전망

- 201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4.2% 내외로 전망
 - 2011년 하반기가 상반기 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대외적으로 주요 선진국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도 소폭의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중국·인도 등 신흥국도 내수확대를 통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 세계 실물경제 수요 증가 기대
 - OECD는 미국 연간 2.1%, 유로지역 1.7%, 일본 1.9% 경제성장률 전망
 - 반면 중국 9.5%, 인도 8.0%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며, 신흥국의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 수요 증가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²⁾는 82.4%에 달하며, 2010년도 85%대 전망
 -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실물경제도 증가세를 보이며 내수시장이 확대 전망
 -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고, 시중의 단기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산가격이 상승하며 소비 증가 전망
 - 자산가격의 상승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유가상승,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등이 경제 회복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경제 성장세에 다소 못 미칠 것임
 - 7월, 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 인상 기업의 채무 부담 가중 전망
 - 또한 정부의 대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북한과 무력 충돌 및 핵문제 등 대북발 경제 risk가 상존함
 - 북핵문제와 북한 도발 위협에 따른 사회 불안문제도 우려할 만한 점임
- ⇒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국제유가 등 해외 주요 변수와 국내 변수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

2) 대외의존도 = 수출입 거래 규모 / GDP * 100

● 표 9. 국내 주요연구기관의 2011년 경제전망

	SERI	LGERI	KDI	NABO	한국은행	KERI	기획재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3.8	4.1	4.2	3.9	4.5	4.1	5.0	4.2
민간소비	3.5	3.9	4.1	3.2	4.1	3.8	4.3	3.8
건설투자	1.4	0.5	3.4	-0.5	1.4	0.6	2.1	1.3
설비투자	4.9	5.2	8.5	6.3	6.5	7.1	7.0	6.5
수출	8.5	9.7	13.6	7.2	9.4	8.4	10.2	9.6
수입	12.0	14.4	17.7	7.1	13.2	13.2	14.8	13.2
소비자물가	2.8	3.1	3.2	2.8	3.5	3.0	3.0	3.1
실업률	3.5	3.7	3.6	3.5	3.5	3.7	3.5	3.6
환율	1,110.0	1,090.0		1,108.0		1,095.0		1100.8

자료 : 정부 및 각 연구소의 2011년 경제전망에서 발췌.

□ 2011년 민간소비 증가 예상

- 2011년 중 민간소비는 저금리 정책과 소비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한 2010년의 하반기 내 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평균 3.8% 증가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3/4분기(잠정)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
 - 4/4분기도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3%대의 상승세 지속 전망
 - 2010년 민간소비는 세계 경제 회복과 국내 경기 안정으로 인해 4% 내외 정도로 예상됨
- 2011년에는 고용시장 개선의 긍정적인 영향 기대
 - 고용·임금의 소폭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양의 소득효과가 발생
 - 다만 임금 상승폭 등은 고용시장의 상황에 따라 제한적 수준에 그쳐 GDP 증가율 수준을 하회할 전망
- 2010년 주가 상승, 기업실적개선,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2011년에는 실질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
 - 종합주가지수(KOSPI)가 최근 2,000선을 회복하는 등 자산가치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모습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자산효과는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 전망
 - 기준금리 상승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채 상환부담이 증가할 전망

□ 2011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6% 중반 성장 전망

- 세계경기과 내수 회복에 따른 기업의 투자 수요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활동이 활발해져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 됨
 - 2010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3/4분기 25.2%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로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됨

-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자본재 수입부담이 완화되어 제조업체 설비투자 여력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자본재 수입은 설비투자의 60% 정도 비중을 차지함
 - 특히,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은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업들은 현재 설비투자 수준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극적인 자세임
 - 정책금융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설비투자 계획은 2010년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는 2010년에 큰폭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시현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0년 설비투자 전년동기비 1/4분기(29.9%)→2/4분기(30.2%)→3/4분기(25.2%) 증가세 지속

□ 2011년 건설투자는 전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승

- 2010년 건설투자는 정부주도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약 1.3% 정도의 성장을 전망
 - 국토균형개발사업인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2기 신도시 및 도심 재개발 사업, 공공 SOC 투자 등 정책적 건설 수요 예상
- 2011년은 2010년보다는 정부의 건설 투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의 건설투자 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전망
 - 2010년 건설투자 증감률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건설투자 전년동기비 1/4분기(2.3%)→2/4분기(-2.9%)→3/4분기(-2.1%) 감소세
- 전체 건설투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 전망
 - 2010년 건설경기 불안정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상승 전망
 -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일부 상승요인으로 작용
 - 전년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미분양 주택은 상승세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

□ 2010년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높을 전망

- 2010년 성장률이 기저효과와 세계시장 수요 확대 등으로 2011년 수출은 9.6%의 증가율 예상
 - 세계경제가 201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1년 세계경제는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IMF, OECD)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경기상승 국면과 주요 품목의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

- 스마트폰,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출주력 품목인 IT 및 전자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자동차 및 부품수출이 2011년 누계 49.3% 증가하는 등 호조세
- 수입은 수출 증가보다 큰 폭의 상승
 - 수입은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수입증대효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두바이유 가격(\$/배럴)은 2010년 6월 67.7\$ → 9월 75.2\$ → 11월 83.6\$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며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인 상승 전망

- 2011년 소비자물가는 공급측면에서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의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2010년 보다 상승 전망
 - 201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물가안정기준인 3.0%를 다소 상회한 3.1% 수준으로 전망
- 국내 경기 회복과 소득증대로 인한 수요 확대에 인플레이션 요인 작용 전망
- 부문별로 농산품의 경우 2010년과 마찬가지로 기상이변, 작황수준 등에 따라 가격변동 폭이 확대 가능성 상존
 - 주요 원인은 농축산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 생산량의 변화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노동시장의 개선, 실업률 다소 하락

- 수요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어 노동시장의 침체 개선
 -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상승함에 따라 내수 증대 전망
 - 2010년 실업률은 3.8%로 예상되며, 2011년은 약 0.2%p 하락한 3.6% 전망
- 고용창출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공공부문의 고용 흡수는 2010년과 유사할 전망
 - 2011년에도 공공건설부문의 4대강 사업 등 정부주도의 건설투자와 고용확대 정책 등이 전년 수준
 - 2010년 고용 증가율보다는 적은 수준의 상승세 예상

2. 충북경제 전망

□ 2011년 충북경제는 전국보다 다소 높은 성장률 전망

- 충북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및 국내경기 회복 기대감과 실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며 4.6% 성장률 전망(전국 4.2% 전망)
 - 2011년 충북 경제성장률은 국내경제성장률을 다소 상회할 전망
 - 최근 충북을 중심으로 세종시 건설, 오송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등 투자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상향될 가능성 상존
 - 2010년의 충북지역 산업생산활동 및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
 - 일부 지표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1년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전국 수준 이상일 것으로 기대
 - 2009년 충북 GRDP 성장률은 4.0%로 전국평균 0.4% 증가를 상회

□ 2011년 지역내 민간 소비 개선 전망

- 고용시장은 안정되고, 투자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이 발생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증가율은 3%대 중반 전망
 - 고용사정이 전국수준보다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실업률은 2%대 초중반 정도로 전망
 - 2010년 11월 누계 취업자 수 증가율은 충북이 1.7%로 전국평균(1.3%)을 0.4%p 상회
 - 실업률도 11월 현재 전국 3.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인 2.1%에 그침
 - 투자유치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도 증가 예상
- 기업실적 개선, 주가 상승,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등의 자산 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 기대
 - 단,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자산 증대 효과는 충주지역 등 일부지역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대외적인 물가상승요인 변화에 따라 실질 소득 감소가 소비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음
 - 투자축진, 소비진작 효과를 위한 저금리 정책 기조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부담감 등
- 충북 경제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전국보다 적기 때문에 효과는 전국수준을 하회
 - 충북 민간소비 비중 40.8%, 전국 52.2%

□ 설비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국보다 다소 높은 성장세 전망

- 충북 주요 전략산업 부문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설비 증대 전망

- 2011년 세계경제 상승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내수 시장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제품과 자동차 관련 부품 소재 산업 경기 증가 전망
 -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첨단 IT제품 시장 수요가 크게 증가
- 또한 노후설비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 역시 설비투자 증가세에 기여
- 충북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비투자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소폭 높은 7%대 초반정도로 전망
 - 세종시 조성, 오창, 오송, 충주, 진천·음성 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 지속적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신규설비 투자도 지속
- 2010년 신규 설비투자 증가가 큰 폭으로 확대된데 따른 기저효과로 2010년 증가율보다는 크게 하회할 전망
- 2010년 하반기 제조업 재고 증가는 설비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다 8월 이후 증가로 전환
 - 다만, 재고율³⁾지표로 보면 감소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
 - 기업들이 적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조정할 수도 있음
 -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체의 자본재수입 확대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전망

- 충북 건설투자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소폭 높은 1%대 후반의 증가율 전망
- 2010년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수요가 증가 기대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 건설, 4대강 관련 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세종시 건설 수정 논란 이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부권역의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
-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은 2011년에 건설투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정부의 주택대출 DTI규제 정책, 금리 인상 등은 건설경기 상승세를 다소 둔화시킬 전망
 - 다만 주택대출 DTI규제는 최근 다소 완화
- 도내에서 수행되는 건설현장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지역건설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 필요

□ 수출은 충북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 예상

-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충북제품 수요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충북 수출도 증가 전망

3) 재고율 = 재고지수 / 출하지수 * 100

- 2010년 큰 폭의 수출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율 축소
- 2011년 충북 수출 증가율은 연간 10% 초반 성장률 전망
 -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어 2011년 세계경제는 4.2% 성장 전망(IMF, OECD)
- IT산업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부품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
 - 2010년 초부터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실질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산업기초소재 및 최종상품 재화까지 전 품목에서 수요 증대
 - 충북 수출에서 전자전기제품 비중은 54.7%인만큼 기여도가 높음
 - 전세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전자 차세대전자 산업의 경우 전자제품의 고기능화, 소형화 추세에 따라 고성능 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또한 태양광 기초소재 및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충북의 태양광산업의 수출 증가 예상
- 바이오산업은 세계적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향후 바이오산업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인상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 수입 증가율은 수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 보다 높은 10%대 초중반 정도로 전망
 -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에 따라 2011년 중 수입은 원자재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원자재가격, 국제유가의 인상과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량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수입액 증가 전망

□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지속, 증가율 축소

- 2011년 지역 고용시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완만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0년 충북의 노동시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큰 폭 하락
 - 2010년 11월 현재 전년 누계 증가율은 제조업 4.1% 증가, 서비스업 0.3% 증가(전국 각각 +4.8%, +1.2%)
- 도내에 유치한 기업들이 공장 신축 및 증설을 통하여 본격적 생산을 가동하게 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규모는 2010년 수준으로 전망
 - 단 2010년 큰 폭 상승의 영향으로 2011년 증가율은 축소 전망

□ 지역물가는 전국추세와 동행하는 가운데 다소 증가 전망

- 2011년 충북지역 물가는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적 상승압력 요인이 다시 심화되면서 증가 예상
 - 2011년 충북지역물가는 2010년 하반기의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충북지역 물가는 전국물가와 같이 내생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음

충북 FOCUS

2010년 충북경제 진단 및 2011년 충북경제 전망

조택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충북개발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전화 | 043-220-1107
팩스 | 043-220-1199
<http://www.cri.re.kr>